

# 곳곳 반려동물 '배설물 폭탄' '이런 변이 있나' 시민들 분통

29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선운지구 인근 황룡천수공원에서 주말을 맞아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시민들이 곳곳에서 보였다.

상당수 시민은 분변 봉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부는 자신의 개 배설물 해도 치우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공원 내 500m 구간에서 개 배설물이 발견된 장소는 10여 곳에 달했다.

검은색 푸들과 산책을 나온 김지수(여·25·광산구 소촌동)씨는 "산책을 하다 보면 길가에 동물 배설물이 자주 보인다"며 "일부 몰지각한 사람 때문에 애견인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이하면서 동물 배설물 등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주민은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할 설치를 제안하는 등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반려동물 배설물이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 등에 방치돼 아이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내 반려견 수는 19만마리, 반려묘는 6만마리로 추정된다. 이들 반려동물이 하루 평균 1회만 배변 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일 25만개, 1년이면 1억개 정도의 배설물이 외부로 배출되는 셈이다.

정부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배설물 처리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하다 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1차 적발시 5만원, 2차 적발시 7만원, 3차 이상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적법하더라도 반려동물 주인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단독 자체도 형식적이어서 과태료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광주의 산책명소인 광주천변, 푸른길공원 등의 경우 곳곳에서 쉽게 동물 배설물이 눈에 띄었지만, 담당 지자체에서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광주 일부 애견인 뒷처리 안해  
공원 500m 구간 배설물 10여곳  
놀이터 분변 등 어린이 건강 위협  
주민간 갈등 심화 부르기도  
형식적 단속에 과태료 유명무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지난 5년간 배설물 미수거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서구에서 1건뿐이다.

선거철이면 자치단체장 후보들마다 관리인력 충원을 비롯한 반려동물 관련 각종 지원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막상 당선되면 속빈 공약(空約)에 그치고 있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지태경 광주시 생명농업과 주무관은 "각 자치구에서는 직원 1명이 A1방역·축산물 위생 관리 등 축산업무를 맡고 있기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업무까지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등은 관리 인력 충원 및 제도적 대책, 홍보,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이 필요하지만, 광주의 경우 선거철 공약으로만 거론될 뿐 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놀이터 등에 반려동물 배설물이 무단방치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위생 문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사는 최모(50)씨는 "동물 배설물이 놀이터 모래에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개인 인식에 호소하기 보다는 지자체에서 배설물 수거함을 따로 만들어 적법한 분변 처리를 유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환 전남대 수의대병원 행정실장은 "동물 배설물에 접촉하면 심할 경우 기생충 유발할 수 있는 '톡스 플라스마'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사람의 건강과 사회미관을 생각해서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분변 처리를 철저히 하고, 자치단체도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상가 앞 가로수에 반려견 배설물 수거를 촉구하는 문구가 부착되어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출소 5일만에 폭행·무전취식...전과 80범 구속

광주동부경찰은 29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일 만에 폭행과 무전취식을 일삼은 김모(54)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동구 광산동 한 주점에서 6만 5000원어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

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10분께에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인근을 지나던 광주도시철도 1호선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A씨의 얼굴을 이유없이 때린 혐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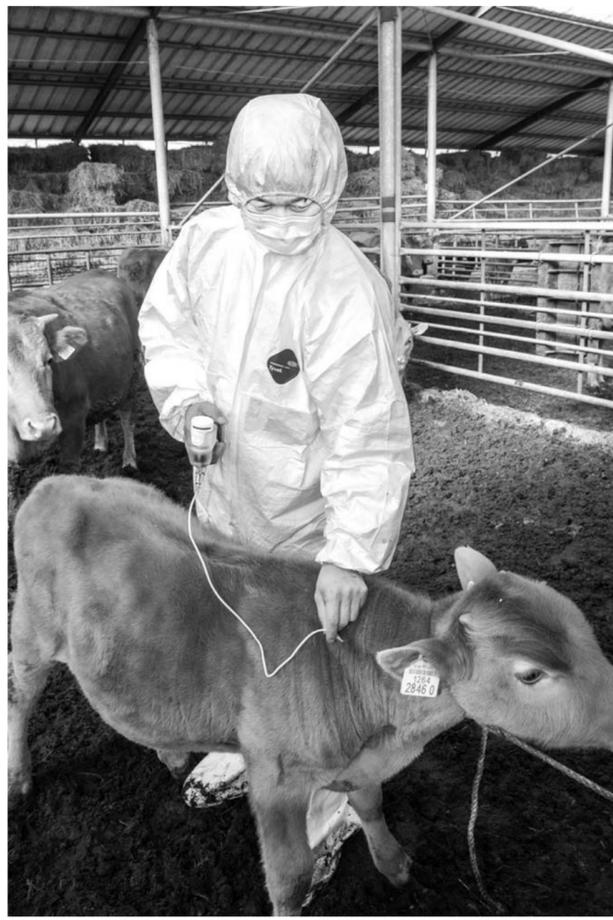
2일 뒤인 28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한 식당에서 2만8000원 상당의 삼

겹살과 소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전과 70범 등 총 전과 80범인 김씨는 지난해에도 무전취식으로 1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1일 만기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출소 후 일정한 주거 없이 광주지역 점집방 등을 돌아다니며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구제역 확산 막자' 예방접종 설을 앞두고 구제역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린 29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정동의 한 축사에서 북구청 공무원이 송아지에게 구제역 예방접종을 놓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심장질환 등 부작용 부르는 20억대 불법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 일당 실형·벌금형

한약사 처방 없이 심장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약품 제조 등),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씨의 형제와 한약사 등 4명은 각각 징역 10월~1년 6개월에 징역유예 2~3년, 벌금 5억~1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씨는 한약사를 고용해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 제조·판매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했다"며 "장기 복용 시 체질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도 포함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3억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한약사 처방 없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약사 면허를 빌리거나 한약사와 협업해 광주와 경기 수원 등에 한약국을 개설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뒤 환자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한약사와의 간단한 전화 상담 등을 거쳐 택배로 약을 배송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주차된 차량서 입주민 전화번호 무단 수집 아파트 분양업체 직원 혐의 적용 놓고 고민

광주서부경찰, 20대 붙잡아

경찰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입주민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무단수집하다 붙잡힌 아파트 분양업체 직원의 적용 혐의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앞 유리 등에 노출된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던 A(25)씨를 붙잡았다.

아파트 경비원 B(60)씨는 이날 순찰 도중 아파트 주차된 차량 앞에서 기웃거리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주거침입 신고를 했다.

경비원 B씨는 "입주민도 아닌 A씨가 새벽에 아파트 주차장에 허가 없이 들어와 입주민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신고

했다"고 말했다.

한 아파트 분양업체 직원인 A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분양업무 등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차량에 부착된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했지만 죄가 될 줄은 몰랐다"고 진

의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문신한 20대에 "너 깡패냐"며 뺨 때리고 김치 들이부은 취객



○술집에서 40대 취객이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20대 손님인 뺨을 때리고 김치까지 들이부어 경찰서행.

○29일 광주광산경찰은 황모(42)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한 주점에서 자신의 옆 테이블에 있던 A(25)씨의 문신을 보고 "야 가까이 와봐라. 너가 깡

패냐"라고 악을 쓰는 등 시비를 걸며 뺨을 4차례 때리고 얼굴과 몸에 김치를 들이부었다는 것.

○이날 황씨와 A씨는 술집에서 처음 본 사이로 알려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황씨를 귀가조치 시켰지만 조만간 다시 불려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